



#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·여성을 위해 행안부·여가부가 함께 맞춤형 지원 추진

- 7월 5일(금), 인구감소지역 현장 소통간담회를 통해 정책 발굴
- 행안부-여가부가 협업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시책사업 추진

## <행안부-여가부 협업으로 기대되는 변화사례>

□ (청소년 성장지원) 인구감소지역 A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1군은 매주 월요일 전국 제일의 제빵사가 되기 위해 ‘청소년꿈키움센터<sup>(가칭)</sup>’로 향한다. ‘청소년꿈키움센터’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A 시의 유휴공간을 정비해 조성된 청소년 전용공간이다.

여가부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이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험활동을 제공하거나,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A 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.

□ (여성 일·생활 균형 여건 조성) 인구감소지역 B 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여성 2씨는 한 달에 한 번 직장 대신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조성한 ‘우리동네 공동육아센터<sup>(가칭)</sup>’로 향한다.

B 군 소재 C 기업이 여가부 지역 맞춤형 일·생활 균형 여건 조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일하는 부모들이 매달 자유롭게 ‘육아데이<sup>(가칭)</sup>’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덕분이다. 앞으로도 B군은 동네 부모들끼리 소통하고 공동으로 육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하여 청년·신혼부부가 양육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.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와 여성가족부는 7월 5일(금),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·여성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.

○ 이번 현장 소통간담회는 지난달 17일 체결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·여성 지원 업무협약\*의 이행을 위해 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,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○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소년의 성장과 여성의 일·생활 병행을 지원하여,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‘인구감소지역 청소년·여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(MOU)’을 체결한 바 있다.

※ 업무협약서 붙임 2 참고

□ 먼저, 간담회에서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청소년 주도의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과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‘일·생활 균형’ 추진사례를 소개한다.

○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‘흙기사’와, 삼척시에서 청소년이 주도하여 제안·기획·운영하고 그 수익을 지역에 기부하고 있는 카페 ‘한가람’ 사례를 공유한다.

○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제천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일·생활 균형 여건 조성 기업 발굴 사례와 해남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‘엄마 교사가 활동하는 섬마을 공동육아방’ 사례 등을 소개한다.

□ 이어지는 현장 소통간담회에서는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.

○ 참석자들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둘러보고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본다.

○ 아울러 공주시 내 수제품, 캔들 등을 판매하는 공유가게를 방문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사례를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.

□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·여성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.

-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청소년 성장지원 또는 지역 맞춤형 일·생활 균형 여건 조성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- 한편, 여성가족부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·여성 정책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한다.
  - 두 부처는 아동·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여성 정착 및 일자리 특화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자원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.
-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“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인구감소지역 아동·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일·생활 균형 지원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-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과 여성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박진석 (044-205-3501)
		담당자	사 무 관	김창균 (044-205-3509)
	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민아 (02-2100-6231)
		담당자	전문위원	전재은 (02-2100-6237)
	성별영향평가과	책임자	과 장	이금순 (02-2100-6171)
		담당자	사 무 관	홍영희 (02-2100-618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**



□ **행사 개요(안)**

- (일시/장소) 2024. 7. 5.(금) 14:00 ~ /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
- (내 용) 인구감소지역 청소년·여성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논의 등
- (주요참석자) 행정안전부<sup>차관</sup>, 여성가족부<sup>차관</sup>, 인구감소지역 청소년\*·여성\*\* 업무 지자체 담당자 및 청소년관련 기관장 등

\* 청소년(7개 시군구) : 곡성군, 고성군, 영암군, 청양군, 옥천군, 장흥군, 공주시

\*\* 여성(3개 시군구) : 공주시, 제천시, 보령시

○ **주요일정표**

구분	세부시간		주요내용
현장 소통 간담회	14:00~14:05	5'	참석자 소개
	14:05~14:10	5'	인사말 * 행안부 / 여가부
	14:10~14:25	15'	인구감소지역 청소년·여성 정책 사례 발표
	14:25~15:10	45'	현장 소통 간담회
	15:10~15:15	5'	기념 촬영
현장 방문	15:15~15:35	20'	시설 라운딩 (공주시 청소년 문화센터/청소년 전용 공간)
	15:35~15:45	10'	(이동)
	15:45~16:00	15'	공유가게 방문(무리플라워앤카페)

## 인구감소지역 청소년·여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

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여성의 일·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각 기관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과 여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도모와 여성들의 일·생활 균형 유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내용)** 각 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인구감소지역에 거주·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
2. 인구감소지역 청소년·여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·제도적 지원
3.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일·생활 균형 여건 조성사업 운영 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항목 평가 시 우대 등 지원
4.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성장지원과 지역 내 여성 정착·일자리 특화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과 확산
5. 기타 각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

**제3조(협약의 이행)** 각 기관은 제2조 각 항의 내용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.

**제4조(효력)** 본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때부터 발생하며, 협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

**제5조(협약의 조정)** 본 협약의 내용은 필요시 서면 합의 등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2024년 6월 17일

행정안전부

여성가족부